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순례 ‘그길을 따라 걷다’ 체험 수기

땀의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 걷다’

용암동 성당 왕미령 요안나

‘최양업 (토마스) 신부 일행 난파 체류지’

군산 새만금 센터 철망 너머 조그마한 나무 팻말에 쓰여진 글귀이다.

1847년 9월 그림고 그림던 고국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선박이 좌초되어 최양업 신부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군산 신시도는 이제는 배가 아닌 자동차로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놓여질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닷바람은 그때처럼 매섭기만 하다.

수년 전부터 남편과 나는 일상에 지쳐 마음이 힘겨움을 느낄 때마다 전국의 성지를 순례하면서 순교자들의 간절한 믿음과 신앙을 생각하며 느슨해진 신앙의 끈을 다잡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는 하였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미사도 멈추고 성지도 방문할 수 없어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감사하게도 올해부터 코로나 19가 주춤해지면서 성지도 미사를 재개했다는 소식에 그동안 멈추었던 순례길을 특별히 최양업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 시작하게 되면서 잊고 있던 벅찬 감동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청양 다락골 성지는 유리창 너머 청량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아름다운 대성당과 최양업 신부님의 기념관이 완공되어 반가움을 더했다. 줄 무덤을 참배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미사를 드리니 마음이 풍요로워짐을 느꼈다.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의 섭리에 저를 온전히 맡깁니다’

라고 하신 신부님의 말씀이 입구에 새겨져 있어 나도 모르게 ‘저의 삶도 온전히 하느님께 맡깁니다.’ 하는 기도를 올렸다.

진실한 하느님의 일꾼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첫아들에게 양업(良業)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의 바람처럼 신부님께서 1836년 2월 우리나라 첫 번째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마카오로 출발하는 날부터 1849년 12월 말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고국땅으로 돌아와 1861년 6월 15일 충청도 진천 공소에서 과로로 선종하시기까지 오롯한 주님의 일꾼으로 성실한 삶을 사셨다. 한 사람의 진실한 믿음과 신념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는 신부님의 순방길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었다. 열심한 교우가 있다고 하면 그곳이 어디든, 얼마나 고된 길이든,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셨다. 지금처럼 포장이 잘

된 길도 아닌 산길을 포졸들을 피해서 달빛에 의지하며 걸음을 재촉해야 하는 고달픈 여정 속에서도 기쁘게 순방을 이어가셨다. 그렇게 달려간 곳에서는 영신 구원에 목말라 있던 순박한 교우들이 맞이해 주었다.

보은 명에목 교우촌과 부여 도양골 교우촌, 그리고 울산 간월, 죽림, 살티공소가 특히 척박하고 외진 곳에 위치하여 네비게이션으로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한 곳에서 혹독한 박해로 인해 숨죽이며 신앙을 이어가던 교우들에게 소문으로만 들던 조선인 목자가 와서 전해주는 고해성사와 미사성제, 성체성사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교우들의 마음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3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미사를 다시 참여하게 되고 성체를 모실 수 있었던 그 날의 기쁨과 감히 비견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레 짐작해본다. 이렇게 열심한 교우들은 신부님께서 떠난 뒤에도 그 가르침에 힘입어 더욱더 신앙을 공고히 하여 결국 용감하게 하느님을 증거하며 죽음을 맞이하였다.

아산 남방제 성지에서는 최양업 신부님의 복사와 마부로 봉사하면서 신부님께서 선종하실 때까지 곁에서 지키다가 마침내 어린 아들 조윤희 베드로 성인과 함께 병인박해 때 순교하신 조화서 베드로 성인의 자취도 찾아볼 수 있었다. 두 성인이 순교한 전주 숲정이 형장을 작년에 다녀온 우리에게는 더욱 반갑고 뜻깊은 순례가 되었다. 또한 내포의 성지들이 버그네 순례길로 잘 조성되어 있어 더위에도 많은 교우들이 순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반가움을 더 하였다.

최양업 신부님의 순방지인 경주 진목정 공소를 찾은 날은 장대 같은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우리를 먼저 순례를 마치고 처마 끝에서 비를 피하며 묵주기도를 하고 있던 또 다른 부부가 친근한 인사로 맞아주었다. 서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마주치는 눈빛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위로와 기쁨이 느껴졌다.

울산 병영장대 순교지에서는 순교자 허인백 야고보와 이양등 베드로의 굳센 믿음과 용기에 존경과 자랑스러운 마음이 솟았고, 부산 오륜대 순교자 묘역에서는 아직도 찾지 못한 나머지 순교자들의 가묘를 묘역 안에 조성해 놓은 모습이 안타까워 쉽사리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께서서는 사제 서품을 받으시고 귀국하여 선종하실 때까지 쉽 없이 교우들을 찾아가 하느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시다 겨우 나이 마흔에 과로와 장티푸스로 선종하셨다. 힘들게 고열에 시달리면서 마지막까지도 “좋으신 예수님~~ 성모님~~” 하고 기도하시며 돌아가셨다.

이러한 신앙 선조들의 희생과 용기에 힘입어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맘껏 누리

며 살고 있다. 목숨을 바치는 순교보다는 시간과 노력을 봉헌해야 하는 지금의 신앙인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성실히 전한 ‘백색순교’의 삶을 사신 최양업 신부님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 신앙인일 것이다.

처음 코로나로 인해 미사가 중단되었을 때 슬프고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그 시간들에 익숙해져 다시 미사가 재개되었지만 지금도 미사 참여에 게을리하고, 묵주기도 바치는 것이 귀찮다고 하는 교우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나 역시 그들처럼 편안함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이를 핑계로 봉사하는 일에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하느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되돌아본다.

“우리들은 좋은 일이나 궂은일이나 모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 항상 의탁하고 그분의 안배를 칭송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온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멩에목 교우들처럼 나의 모든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순명하며 산다면 이 보다 더 평화롭고 기쁜 일이 있을까?

최양업 신부님께서 태어나신 청양 다락골에서 시작하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귀국할 때 타고 오신 라파엘호의 모습으로 성전이 지어진 부산 오륜대 순교성지까지 약 5개월간의 여정을 마치면서 신부님의 서한 한 구절을 가슴에 새겨본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려고 저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의 손에 맡겼으니, 그분을 언제나 믿을 것입니다.’ <최양업 부제의 1847년 9월 20일자 서한>

- 끝 -